



시대의 벽 넘어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의 불꽃같은 삶

조선이 버린 천재들

이덕일 지음

별문지화(滅門之禍)한 집안이 모두 없어지는 큰 재앙. 왕조시대에 왕권이 나 기존 체제에 도전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이들은 사약을 받거나 사지가 찢겨 죽는 능지처참을 당해야했다. 그리고 삼족(三族=부계·모계·처계 친족을 통칭) 전체까지 화가 미쳐 '역적' 가문은 풍비박산(風飛塵散)났다.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최근 펴낸 '조선이 버린 천재들'은 시대의 벽을 뛰어넘으려했던 이들을 세로로 조명했다.

저자는 10여 년 전 아계 김일경(1662~1724) 선생의 후손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았다. 아계는 1721년 경종의 왕권을 위협하는 노론 대신 4명을 '사충'(四忠)이라고 공격하는 상소를 올려 영조 즉위 후 사형당한 인물이었다. 영



조와 노론이 경종을 독살했다고 믿은 그는 영조에게 '시원하게 나를 죽이라'고 맞섰다고 한다. 연좌된 그의 자식들도 절멸됐으나 후손 중 한 명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저자는 아계 후손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의 붓을 잡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틈을 깨다 ▲죽음으로 맞서다 ▲가난을 구제하다 ▲절개를 지키다 등 4개 주제로 나눠 당대에 버림받았던 22명의 선각자의 삶과 철학을 소개한다. 서열 출신으로 새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유득공·박제가,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려 했던 김개남, 주자와 다르게 경전을 해석했다고 사문난적(斯文亂賊=주자학 교리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유교의 질

서와 학문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몰렸던 윤후 등 당대의 상식에 도전했던 '천재'들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저자는 대다수 사람이 상식이라고 믿는 개념과 구조에 반기를 들고 싸운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른다.

하국 정재두(1649~1736)는 주자학 이외의 모든 사상을 이단으로 몰던 폐쇄적 시대에 주자를 비판한 양명학자였다. 그는 사민(사·농·공·상) 평등사상을 가진 양명학을 신봉했다. 이후 소론계 인주님이 학문 자유를 위해 강화도로 이주해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노론파 후손들이 일제에 협력한 반면 백암 박은식(임시정부 2대 대통령), 보재 이상설(헤이 밀사) 등 '강화학파' 후예들은 대거 독립운동에 헌신해 대조를 이룬다.

고흥출신 어우당 유몽인(1559~1623)은 야사집 '어우야담'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인조반정 후 광해군을 복위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처

형됐다. 정조는 그에 대해 "광해군 때는 바른 도리를 지켜 은거하였고, 반정(反正) 후에도 한번 먹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절개를 높이 샀다.

조선시대 반역자, 이단으로 몰렸던 이들은 수백 년이 흐른 현재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천재'들의 핏자국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상식을 뛰어넘는 이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고금(古今)을 망라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가·사상가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천하에 두려워할 바는 오직 백성이다'(허균)라는 명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이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자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서해문집·1만8000원〉
▲부자의 집사=버들러&컨시어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라이 나오유키의 책. 수백억 원대의 부자들을 직접 모셔온 집사 53가지 돈의 철학을 공개했다. 오직 집사에게만 털어놓았던 가난한 과거 시절부터, 그런 자신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든 투자 노하우, 돈과 사람을 불러들이는 인맥 관리 비법까지, 지금껏 '일급비밀'로 철저히 보안 속에 감춰졌던 부자들의 삶과 성공 스토리를 모두 담았다. 〈다산북스·1만4000원〉

▲배드 걸 굿 걸=우리 시대의 미디어는 여성이 힘을 갖게 되었으며, 원하는 것

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소주 한잔 걸치며 먹는 '셋서방고기'(군평선이), 갯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가우도 바지락 밥상, 무침과 바삭한 튀김이 어우러진 중도 망둑어 밥상 등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엔 입맛을 다시게 된다. 저자는 "느리게, 고유하게, 내 힘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나누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섬살이'를 독자와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광주에 살며 주말마다 섬에 가는 그는 지금까지 수백개의 섬을 다녔지만 다시 그 섬에 가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덜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북반은 사람임에 분명하다. 〈가자·1만6000원〉

▲걱정 없다 상우=성명진 시인이 첫

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소주 한잔 걸치며 먹는 '셋서방고기'(군평선이), 갯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가우도 바지락 밥상, 무침과 바삭한 튀김이 어우러진 중도 망둑어 밥상 등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엔 입맛을 다시게 된다. 저자는 "느리게, 고유하게, 내 힘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나누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섬살이'를 독자와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광주에 살며 주말마다 섬에 가는 그는 지금까지 수백개의 섬을 다녔지만 다시 그 섬에 가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덜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북반은 사람임에 분명하다. 〈가자·1만6000원〉

▲걱정 없다 상우=성명진 시인이 첫

느리고 고유하게... 바다와 나누며 자연과 공존

섬 : 살이

김준 지음

물결치는 해변의 주글주글해지고 갈라진 손등. 넓은 바다를 품에 안은 작은 섬 분교 아이 바다의 웃음, 외로운듯 마당 빨랫줄에 매달려 있는 생선...

책에 등장하는 섬마을 모습에 웬지 마음이 전전진다. 군청 도는 풍성한 어촌 밥상도 있고, 요즘엔 풍광 좋은 곳에 멋지게 자리한 펜션도 눈에 띄지만 '섬' 하면 떠오르는 기본 정서는 아무래도 '솔솔함'인듯하다.



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을 펴냈다.

그는 지금까지 두발로 순하게 섬을 오고거머 찍은 사진과 취재 기록들 속에서 잘 잊혀지지 않는 얼굴들, 이야기들,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섬살이 모습을

모아 책을 펴냈다.

저자는 사람, 살림, 일, 삼시세끼, 풍습 등 다섯개 키워드로 '섬살이'를 풀어냈다. "섬의 자연경관이 아닌, 사람과 그 사람이 녹아든 장면들 즉, '살림'에 방점을 찍은 책"이라는 그의 설명처럼 140여 개의 짙막한 글에는 사람 냄새, 살아가는 냄새가 물씬 난다.

어부가 바라보는 아침 바다, 배를 타고 떠나는 이들을 바라보는 선장가, 삶의 짐까지 지고 걷는 해녀들의 모습 등이 그렇다. 또 독살, 통발, 죽방렴, 등대 등 섬마을 살림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

새로 나온 책

▲회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는 인문학적 생각들=다양한 조직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과 딜레마에 대해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한 책. 일이란 무엇인지, 최고 경영자는 무엇인지, 조직 구성원을 자신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비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갑을 논란 남전에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기업문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유당전서를 독함=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 운동가로 활동하다 월북, 격변의 시대를 살다 간 지식인 최익한의 성과를 모은 '최익한 전집'의 세 번째 책. 최익한이 1938년 12월 9일부터 1939년 6월 4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글이다. '여유당전서'는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저술을 정리한 문집으로, 다산의 대표적인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에서 시문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저술을 총망라했고 최익한의 글은 이를 종합했다고 볼 수 있다.

▲부자의 집사=버들러&컨시어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라이 나오유키의 책. 수백억 원대의 부자들을 직접 모셔온 집사 53가지 돈의 철학을 공개했다. 오직 집사에게만 털어놓았던 가난한 과거 시절부터, 그런 자신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든 투자 노하우, 돈과 사람을 불러들이는 인맥 관리 비법까지, 지금껏 '일급비밀'로 철저히 보안 속에 감춰졌던 부자들의 삶과 성공 스토리를 모두 담았다. 〈다산북스·1만4000원〉

▲배드 걸 굿 걸=우리 시대의 미디어는 여성이 힘을 갖게 되었으며, 원하는 것

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소주 한잔 걸치며 먹는 '셋서방고기'(군평선이), 갯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가우도 바지락 밥상, 무침과 바삭한 튀김이 어우러진 중도 망둑어 밥상 등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엔 입맛을 다시게 된다. 저자는 "느리게, 고유하게, 내 힘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나누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섬살이'를 독자와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광주에 살며 주말마다 섬에 가는 그는 지금까지 수백개의 섬을 다녔지만 다시 그 섬에 가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덜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북반은 사람임에 분명하다. 〈가자·1만6000원〉

▲걱정 없다 상우=성명진 시인이 첫



을 성취하는 능력 있는 주체라고 말한다. 동시에 여성은 마르고 아름답고 여자다워야 하며, 여성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은 멋진 남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시대의 진화된 성차별주의는 강요된 여성성에 근거해 가혹하고 모순된 잣대를 들이대지만, 여자들은 이제 힘이 있으니 페미니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글항아리·2만3000원〉

▲소음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의 침묵=이 시대의 정신적 멘토, 살아 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티벳한 스님의 '소음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의 침묵'. 갈수록 소란해지는 우리의 삶에서 침묵이라는 행위가 갖는 가치와 의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침묵이 갖는 강력한 내적 힘의 원천에 대한 원리적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티벳한 스님이 보거나 들은 침묵에 얽힌 신비로운 일화들, 그리고 내적 힘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법들이 모두 담겨 있다. 〈프린티어·1만4000원〉

▲배드 걸 굿 걸=우리 시대의 미디어는 여성이 힘을 갖게 되었으며, 원하는 것

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소주 한잔 걸치며 먹는 '셋서방고기'(군평선이), 갯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가우도 바지락 밥상, 무침과 바삭한 튀김이 어우러진 중도 망둑어 밥상 등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엔 입맛을 다시게 된다. 저자는 "느리게, 고유하게, 내 힘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나누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섬살이'를 독자와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광주에 살며 주말마다 섬에 가는 그는 지금까지 수백개의 섬을 다녔지만 다시 그 섬에 가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덜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북반은 사람임에 분명하다. 〈가자·1만6000원〉

▲걱정 없다 상우=성명진 시인이 첫

어린이 책

▲뱃지 말걸 그랬어=기발한 상상력으로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요시타케 신스케의 신작. 목욕을 하라는 엄마의 말에 혼자 옷을 벗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티셔츠가 목에 걸려 난처한 상황에 빠진 아이의 이야기다. 티셔츠를 뒤집어 쓴 채 무궁무진한 상상을 펼치는 아이의 머릿속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배꼽 빠지는 웃음을 경험하게 된다. 〈스콜라·1만1000원〉

▲엄마 아빠 결혼 이야기=흔히 볼 수 있는 결혼 앨범을 소재로 결혼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아빠 엄마처럼 결혼하겠다는 아이. 그 아이의 눈에 비친 결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이는 그림책을 읽고, 엄마 아빠의 진짜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혼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계절·1만3000원〉

▲걱정 없다 상우=성명진 시인이 첫



동시집 '축구부에 들고 싶다'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동시집. 담백하고 따스한 시어로 그린 아이들의 세계와 그 아이들을 닮은 자연, 이 모두를 동글게 품어 안는 공동체의 모습이 속이 알찬 김밥처럼 조화로운 맛을 낸다. 〈문학동네·1만500원〉

▲엄마가 유명이 되었어=일본 열도를 웃기고 울린 감동의 화제작.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지를 펼치자마자 "엄마가 자동차에 부딪쳐서 유명이 되었습니다."하고 충격적인 시작을 한다. 내가 갑자기 죽다니, 화들짝 놀란 마음을 겨우 달래 엄마 유명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아들 건이가 더 걱정이다. 〈김벗어리·1만1000원〉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男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女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우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男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명 B10 5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특허방수 2중단열방수, 전천후시공성, 절연방식시공, 내구성탁월

특히 제10-1097784호, 제10-0562035호,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